**아무도 모른다**

2013210061 채윤병

아무도 모른다는 스토리의 전개보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이 카메라에서 사라진 뒤에도 숏의 변경을 바로 하지 않고 몇 초의 간격을 두면서 영화의 전개를 서두르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테이크를 통해서 잔잔한 여운도 만들어냈다. 아마 이러한 잔잔함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또 감독은 색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을 많이 했다. 빨간색이 특히 도드라지는데 뭔가 감독이 주목한 소품에는 빨간색이 있었다. 쿄코의 피아노 모형, 유키의 소리가 나는 신발과 유키 그림 속 엄마의 색, 아키라의 겉옷, 사키의 스카프가 있었고, 게다가 영화 내내 신호등은 주로 빨간 불이다. 아마 이 영화가 빨간색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빨간색이 나올 때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번 더 환기됐다.

또 손과 발을 통해서 눈이나 말로는 하기 힘든 감정들을 더 자세히 표현했고 거울이나 유리를 바라보는 인물을 적절한 카메라의 각도로 표현해서 단절의 느낌을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롱 숏을 통해 드러나는 흐르는 물과 영화 속 사운드의 잔잔함을 통해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인상깊은 장면은 유키가 사키를 그려주던 장면입니다. 영화 몇 안되는 손과 발이 함께 나온 장면인데 맨발과 맨손 그리고 누군가를 그려주는 마음의 그 순수함이 잘 드러났습니다.아마 아이만이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 유키의 비극 때문인지 계속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다.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나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다.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감독은 이러한 내게 불편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누군가의 삶을 꾸밈없이 다정한 무관심으로 담아냈다. 그들은 영화 안에서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 시간이 가며 빨간 매니큐어가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점점 얕아지는 공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감독은 우리에게 빨간 불을 키며 잠시 멈추어서 이야기를 듣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여기 빨간 꿈을 지니고 살았던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이라고 말이다.